

# 신년사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은 용맹하고 강인한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에 힘입어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우리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021년은 불안과 우려 속에서도 우리나라 포장기계 제조기업들은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국내 고객들과 새로운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수출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 회원사는 물론 국내 포장기계 기업들은 괄목할만한 수출 실적을 거둬 수출의 날에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포장기계산업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역경에 굴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한 한해였습니다.

포장기계는 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산업입니다. 오늘날까지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축적한 우리 포장기계 기업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IoT(사물인터넷)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팩토리 설비와 AR(증강현실)·VR(가상현실)·AI(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포장기계의 개발이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포장기계산업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통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국내 포장기계 제조기업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며 혁신 제품과 기술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포장기계산업이 제시하는 미래는 올해 6월 개최하는 전시회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한국포장기계협회에서는 2022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포장산업 전문 전시회 “제23회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2022)”을 공동주최사들과 함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전시회에서는 지속가능한 포장산업의 미래와 환경문제에 대한 포장기계산업과 포장산업의 대응 그리고 친환경 포장기술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들이 출품될 것입니다.

밝아오는 임인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상실과 아픔이 멈추기 바라며 우리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밝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길 기원하며,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

(사)한국포장기계협회 회장 김종철